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 VIP 리포트

■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

- 한·중 FTA 민감품목선정,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

- 한·중 FTA 민감품목선정,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	i
1. 한·중 FTA 2단계 협상 임박 .....	1
2. 산업별 경쟁품목 비교 .....	3
3. 시사점 .....	13
【부록】 .....	15
【HRI 경제 통계】 .....	22

## &lt; 요약 &gt;

## 한·중 FTA 2단계 협상 임박

최근 한중 FTA 협상이 1단계 기본지침(Modality)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2단계 협상이 임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9개 국가와 FTA를 체결, 콜롬비아와는 발효대기 중에 있으며,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도 15개국에 이르고 있다. 11번째 체결국이 될 수도 있는 중국과는 지난 7월 1차 협상에서 90%의 관세철폐율을 합의 하면서 EU 등 타 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의에 그쳤다. 향후 일반, 민감 및 초민감 품목 선정 등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동안 對中 교역 품목의 경쟁력 변화를 반영한 품목 선정을 준비할 시기이다.

## 산업별 경쟁품목 비교

한·중 FTA를 위한 산업별 경쟁품목 분류는 OECD(1993) 등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4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분류방법은 시장비교우위(MCA :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분석, 무역특화지수(TSI : Trade Specialization Index) 등 기존 분석을 결합한 총 4단계의 분류작업을 통해 경쟁력에 따라 4개의 품목군으로 나누었다. 이를 기초로 과거 5년(2005~2010년)과 최근 2년(2010~2012년)간 품목별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對中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우위품목이 최근 2년간 50개나 감소하는 등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더욱이 산업별로는 전자기계, 비금속제품 등 일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한중간 분야별 산업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수산물 분야는 경쟁유지가 대체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수입규제 등으로 경쟁력이 개선된 부분도 있다. 지난 7년간 중국산 육류, 신선과일 등에 대한 수입규제로 농수산물 분야의 경쟁우위품목은 20개 증가하였다. **둘째**, 화학제품은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지난 7년 간, 경쟁우위품목은 16개 증가하며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의료·화장품 등 품목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셋째**, 섬유·가죽제품도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일부 품목은 약화되기도 하였다. 지난 7년간 경쟁우위품목은 26개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섬유제품은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 **넷째**, 펄프·목제품은 전반적으로 경쟁위위가 유지되고 있으나, 종이제품 등은 약화되었다. 지난 7년간 경쟁우위품목이 8개 증가하였으나, 포장지, 인쇄용지 등 제품은 지속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비(卑)금속제품 분야는 경쟁우위가 약화되고 있으나, 기타 비금속 제품 일부는 향상되고 있다. 동, 아연 등 기타 비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품목도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전자·기계 분야는 경쟁 우위가 지속 약화되고 있으나, 반도체 등 일부품목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계·중장비 등은 지속 약화되고 있으나 전자회로, 의료용기기 등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째**, 운송장비 분야는 경쟁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박 및 자동차부품 등 품목은 중국의 기술추격으로 위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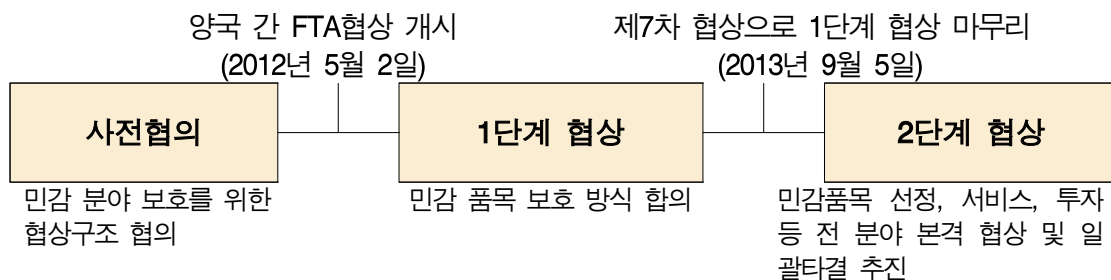
## 시 사 점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2단계 협상이 국내 산업에 한 층 더 성장기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양국간 비교우위 변화를 반영한 민감품목선정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양국간 규제에 따른 비교우위 변화도 고려하여 협상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본격적인 FTA 협상에 앞서 對中 비교열위산업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 및 향후 경쟁력 약화 우려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업계의 실사정도 반영한 현실적인 대응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신성장 산업 등 산업육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1. 한·중 FTA 2단계 협상 임박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이 1단계 기본지침(Modality)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향후 2단계 협상이 임박
  - 한국은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터키 등 9개 국가와 FTA를 체결
    -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3년 터키에 이르기까지 총 9개 국가에 다다름
    - 그 외에도, 콜롬비아와는 FTA 발효대기 중에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기타 15개 국가 및 경제협력체와는 FTA 협상 진행중(본 협상진행, 협상여건조성, 공동연구)
  - 지난 9년간의 한·중 FTA 논의는 최근 2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2단계의 민감 품목 선정에 앞두고 있음
    - 양국 간 FTA 논의는 지난 2004년 9월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합의 후 2010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 2012년 5월에는 양국간 1단계 기본지침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9월 5일에는 7차 협상을 끝으로 1단계 협상이 마무리1)
    - 특히,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에 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 품목 보호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품목협상을 하는 방식 채택2)

### < 한·중 FTA의 민감품목 협상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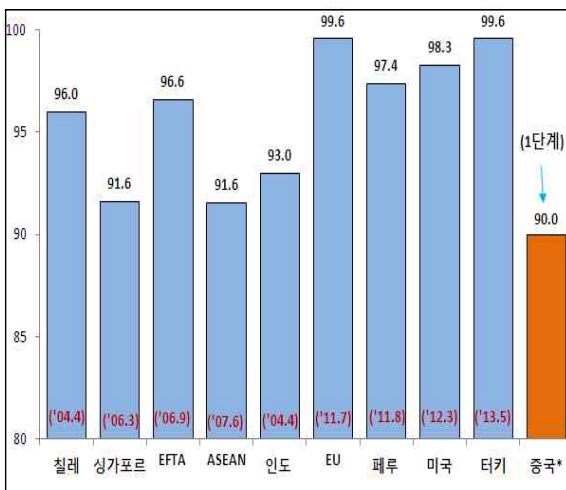


- 1) 한·중 FTA 협상은 올해 6월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원칙” 재확인 이후, 2013년 7월의 제6차 협상에서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농수산협력 등 9개 협정범위를 합의하여 협상의 기본 목표에 도달.
- 2) 한중 FTA 민감 품목은 2012년 1차 협상에서 양국간 FTA의 품목별 개방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 민감 품목은 10~20년 내 관세를 없애고, 초민감 품목은 양허를 제외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음.

- 1단계에서 합의된 한·중 FTA의 관세철폐율은 90%로 한·미, 한·EU 등 타 협상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 그침
  - 지난 2011년, 2012년에 발효된 한·미 및 한·EU FTA는 관세철폐율이 각각 98.3%, 99.6%로 높은 수준의 합의 도출
  -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 곳은 싱가포르, ASEAN 등 2개 국가로 모두 91.6%로 합의
  - 반면, 최근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중국은 전체 품목의 90%, 전체 수입액의 85%로 합의되는 등 낮은 수준 협의에 그침
- 향후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는 전체 품목 중 10%의 양허 제외 품목 선정뿐 아니라, 90%에 포함될 일반 및 민감 품목 선정 등 본격적 협상이 예상됨
  - 그동안 한국이 기체결국 간 FTA 체결 시, 양허제외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쌀, 과일, 육류, 수산물 등 1차산물이 주를 이룸
- 이에 따라 2차 협상에서는 지난 2005년과 비교해 최근 양국간 협상 품목들의 경쟁력 변화를 점검,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의 고려 필요
  - 2005년 양국간 민간공동연구 때와 비교해 2012년 현재 농수산물뿐 아니라 전자 기계, 화학제품 등 제조업 경쟁력 변화 추이 검토 필요성 증대

< 한국과 FTA 체결국 간 관세철폐율 >

(단위 : %)



< 한국과 FTA 체결국 간 양허제외 품목 >

구분	주요 양허제외 품목
칠레	- 쌀, 사과, 배 등
싱가포르	- 농림수산물, 휘발유, TV 수신기 등
인도	- 쌀, 농작물, 육류, 석유제품 등
페루	- 쌀, 쌀제품 등
미국	- 쌀, 쌀제품 등
터키	-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 양념채소 등
EFTA	- 쌀,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
ASEAN	- 쌀, 마늘, 양파, 냉동민어, 갈치, 조기 등
EU	- 쌀, 쌀제품 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1. 중국은 1단계 협상에서 합의.
2. 관세철폐율은 품목수, 관세 완전 철폐 기간은 10년 내 기준.
3. ( )는 FTA 발효시기.

## 2. 산업별 경쟁품목 비교

### 1) 분석방법<sup>3)</sup>

- 총 1,247개 품목에 대한 對中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4단계의 분류 과정을 거쳐 4개의 품목군으로 분류
  - 분석 품목은 총 1,247개 품목을 7개 카테고리로 분류
    - HS 코드 4단위 기준<sup>4)</sup>, 총 1,247개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 화학제품 등 7개 카테고리로 분류
    - 총 1,247개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에 제공하는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對中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
  - 경쟁 품목은 시장비교우위(MCA),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등 4단계 과정을 거쳐 4개의 품목군으로 구분
    - 우선, 총 1,247개 품목을 MCA지수에 따라 절대 우위, 상대 우위 등 4개 품목군으로 분류
    - 이어서, 현재는 다소 경쟁력이 취약하나,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큰 품목을 재조정. 즉, MCA지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품목의 재조정 및 분류
    - 다음으로, 한국 제품의 對中 무역수지와 교역규모를 고려, TSI 분석을 통하여 품목군 재조정 및 분류
    -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수입특화품목들을 재조정<sup>5)</sup>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품목군으로 분류
  - 분석 방법은 4개로 분류된 품목을 바탕으로 과거 5년간(2005~2010년)과 최근 2년(2010~2012년)간 경쟁력 변화를 통해 점검

#### < 분석 품목의 경쟁력 수준별 분류 >

구 분	내 용
절대우위품목	- 절대적 경쟁 우위 품목, 관세 즉시 철폐 가능 품목
상대우위품목	- 경쟁력 일부 확보 품목, 단계적으로 관세철폐 가능 품목
상대열위품목	- 경쟁력 일부 열위 품목, 관세협상에서 보호가 필요한 품목
절대열위품목	- 절대적 경쟁력 취약 품목, 양허제외 필요성이 큰 품목

3) 4단계 분류과정은 OECD(1993), 정보통신부(2004) 및 KIEP(2005)의 분류기준을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정의. 단계별 자세한 분류과정은 부록1 참고.

4) HS코드 4단위는 그동안 1,244개로 구성됐으나, 2002년 개정 후 1,247개로 재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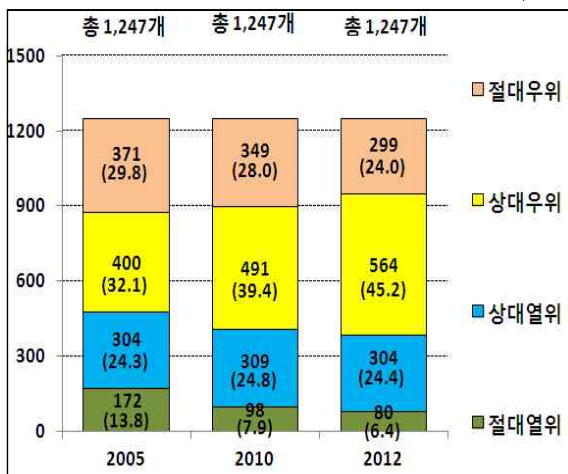
5) 對中 수입이 100%인 품목을 말하며, 비록 경쟁열위품목에 속한 품목이나 향후 협상을 위해 상대열위품목으로 격상시키는 등 재조정.

##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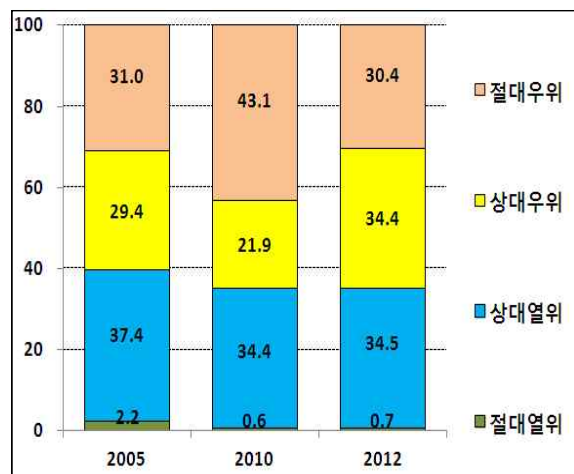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절대우위품목이 최근 2년간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상대우위품목이 크게 늘면서 전반적인 對中 경쟁력 우위 유지
  - 상대우위품목은 2005년 400개에서 2012년 564개로 증가하면서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5%로 증가
  - 더욱이 절대열위품목도 동 172개에서 80개로 감소, 비중도 14%에서 6%로 축소
- 하지만, 對中 절대경쟁우위 품목은 최근 7년간 지속 감소
  - 절대우위품목의 감소폭은 최근 2년간(2010~2012년)에는 50개로 과거 5년간(2005~2010년)의 22개보다 2배 확대
  - 또, 상대열위품목은 과거 5년간 5개 증가하다 최근 2년간 5개가 감소하며 경쟁력 변화가 없음
- 한편, 경쟁우위품목의 對中 수출은 증가하고, 경쟁열위품목의 對中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對中 경쟁 우위는 유지
  - 對中 교역 품목 중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수입액 비중은 2005년 39.6%에서 2012년 35.2%로 하향

< 경쟁분류별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 품목군 별 對中 수출입 비중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산업별로는 전자·기계, 비금속 제품 등 제조업 분야가 과거 5년간('05~'10)보다 최근 2년간('10~'12)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
  - 절대 및 상대우위품목 중 과거 5년간과 비교해 최근 2년간 감소폭이 큰 분야는 전자·기계, 농수산물 등으로 나타남
    - 절대우위품목 중 비금속 제품, 전자·기계 등 2개 분야는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며, 섬유·가죽, 펄프·목제품은 감소 지속
    - 상대우위품목 중 농축수산물, 화학제품, 펄프·목제품, 전자·기계 등 4개 분야가 경쟁력 향상이 둔화
  - 상대 및 절대열위품목 중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2개 분야가 최근 2년간 감소폭이 과거 5년간보다 둔화하며 경쟁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상대열위품목 중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2개 분야는 품목수 증가수가 최근 2년간 5개, 9개로 늘며 경쟁력이 크게 약화
    - 절대열위품목은 농축수산물, 화학제품, 섬유·가죽, 펄프·목제품,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6개 분야에서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
  - 특히, 농축수산물, 화학제품 등은 對中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최근 2년간 빠르게 경쟁력이 약화
    - 농축수산물은 상대우위품목이 과거 5년간 증가폭이 19개에서 최근 2년간 7개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절대 열위 품목도 -16개 감소에서 -1개 감소로 감소폭 축소
  - 한편, 철도·항공기·선박 등 운송장비 분야는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

< 2005-2012년 분야별 경쟁 품목 증감수 >

(단위 : 개)

구 분		농축수 산물	화학 제품	섬유· 가죽	펄프· 목제품	비금속 제품	전자· 기계	운송 장비	기타
절대우위품목	5년간	-4	-4	-8	-5	3	7	-3	1
	2년간	0	2	-6	-4	-19	-16	3	-10
상대우위품목	5년간	17	12	16	10	7	10	2	17
	2년간	7	6	24	7	15	6	6	2
상대열위품목	5년간	3	1	7	1	-4	-1	2	-4
	2년간	-6	-1	-13	-2	5	9	-6	9
절대열위품목	5년간	-16	-9	-15	-6	-6	-7	-1	-14
	2년간	-1	-7	-5	-1	-1	1	-3	-1

주 1. 음영 부분은 과거 5년간보다 최근 2년간 경쟁력 하락이 지속 및 증가한 분야.  
 2.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기준.  
 3.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3 참고.

① 농축수산물 분야 : 경쟁 유지 미약

○ 그동안 중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등으로 對中 경쟁열위품목이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수산물, 작물 등은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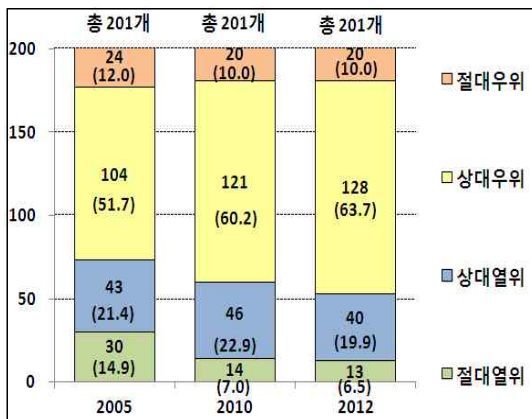
- 지난 2005~2012년 사이 중국산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상대 및 절대 열위품목이 동시에 감소

- 축산, 수산, 가공식품, 작물, 곡물·종자, 동식물성 유지 등 농축수산물 분야 중 경쟁우위 품목은 2012년 148개로 지난 2005년 128개보다 20개 증가
- 반면, 경쟁열위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 검역문제로 수입을 금지한 품목뿐 아니라 병충해로 인한 신선과일 수입 규제로 지난 2005년 73개(36.3%)에서 2012년에는 53개(26.4%)로 대폭 감소

-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농축수산물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산물, 작물 등 농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여전히 경쟁 위협을 받고 있음

- 2005~2012년, 가공식품은 경쟁우위품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對中 경쟁우위를 유지
- 전체 농축수산물 품목 중 전통적으로 對中 열위 품목으로 여겨졌던 축산, 수산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 제한 등 규제 강화로 경쟁품목수의 변화가 크지 않음
- 다만, 동기간 채소, 과일 등 작물은 對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농축수산물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 '05-12년 농축수산물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구 분	절대우위		상대우위		상대열위		절대열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축산	0	0	0	0	1	0	-1	0
수산	0	0	0	-1	0	1	0	0
가공식품	-3	0	7	6	3	-6	-7	0
작물	-2	0	5	-1	1	1	-4	0
곡물·종자	0	1	4	2	0	-3	-4	0
동식물 유지	1	-1	1	1	-2	1	0	-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② 화학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유지

○ 유·무기 화학제품 등은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의료·화장품 등 저가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경쟁력 지속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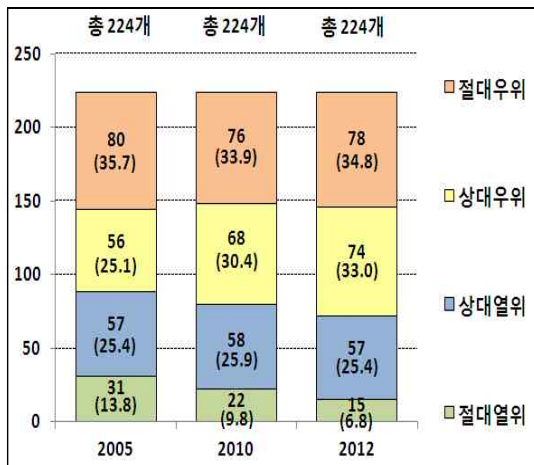
- 지난 2005~2012년 간 對中 화학제품의 경쟁우위 품목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경쟁 열위 품목은 감소하며 경쟁력 향상

- 의료·화장품, 유·무기 화학제품, 화학공업품, 플라스틱·고무 등 화학제품 중 경쟁우위 품목은 2012년 152개로 지난 2005년 136개보다 16개 품목이 증가
- 반면, 중국에 대해 경쟁이 취약한 화학제품 품목수는 2005년 88개(39.2%)에서 2012년 72개(32.2%)로 감소

- 산업별로는 유·무기 화학제품, 화학공업품, 플라스틱·고무 등 품목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의료·화장품 등은 경쟁력이 하락

- 유무기 화학제품은 상대우위품목이 최근 2년간 7개 증가한 반면, 상대열위 및 절대 열위 품목은 지속 하락
- 더욱이 화학공업품과 플라스틱·고무 등 품목에서도 절대우위품목이 지속 증가할 뿐 아니라, 절대열위품목은 감소세가 지속
- 하지만, 저가 의약품, 비료 등 제품과 유·무기 화학제품 중에서도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유도체 및 금속산화물 등은 지속적으로 경쟁 열위를 보이고 있음

< 화학제품분야의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화학제품의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구분	절대우위		상대우위		상대열위		절대열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의료·화장품	0	-2	4	0	0	1	-4	1
유·무기 화학제품	3	0	-1	7	0	-2	-2	-5
화학공업품	-5	1	6	1	1	0	-2	-2
플라스틱·고무	-2	3	3	-2	0	0	-1	-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 ③ 섬유·가죽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피·가죽·모피 등 제품의 경쟁력 취약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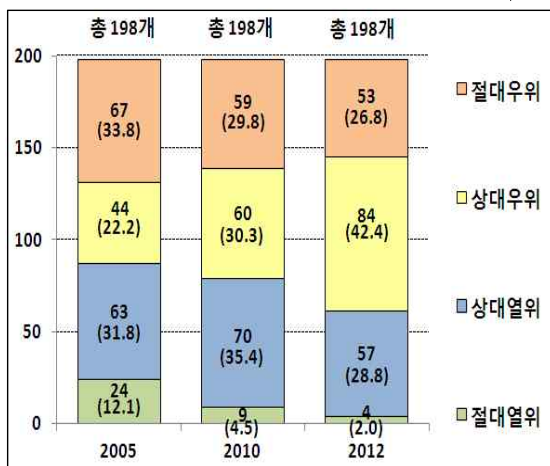
- 2005~2012년 사이 섬유·가죽제품의 對中 경쟁우위 품목은 급증하나, 경쟁열위 품목은 감소하며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

- 섬유제품, 원피·가죽·모피 등 섬유·가죽제품 분야 중 경쟁우위품목은 2012년 137개로 지난 2005년 111개에서 26개 증가
-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05년 87개(43.9%)에서 2012년 61개(30.8%)로 감소

- 산업별로는 원피·가죽·모피 등 품목 중심으로 對中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반면, 섬유제품은 절대우위 및 열위품목에서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

- 원피·가죽·모피의 경우, 절대열위 품목수는 13개에서 8개로 5개 감소했으나, 對中 수입액이 큰 가죽 트렁크, 케이스 등 제품의 경쟁력은 지속 약화
- 반면 의류, 천, 합성섬유 등 對中 수출액이 큰 섬유제품은 상대우위품목은 지속 증가, 상대열위품목은 지속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향상
- 한편, 절대열위품목은 과거 5년간 15개 감소했으나, 최근 2년간 품목수 감소가 멈추면서 경쟁력이 다소 약화

< 섬유·가죽제품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섬유·가죽제품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구 분	절대우위		상대우위		상대열위		절대열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원피·가죽·모피	-2	2	2	3	0	0	0	-5
섬유제품	-6	-8	14	21	7	-13	-15	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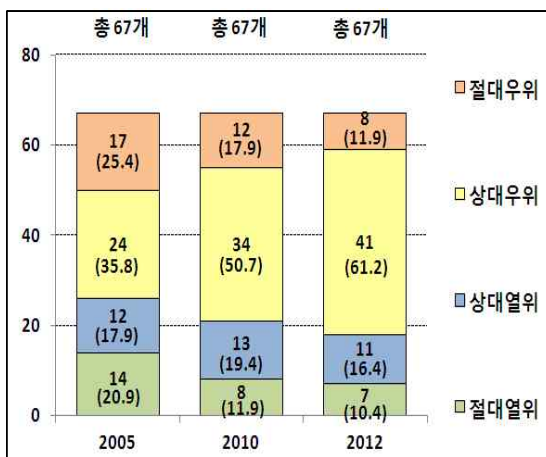
④ 펄프·목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판지 등 종이·펄프 분야에서 對中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2005-2012년 사이 펄프·목제품의 경쟁우위가 증가하며 경쟁력 지속 향상
  - 목재·펄프·종이, 목제품 등 펄프·목제품 분야 중 경쟁우위 품목은 2012년 49개로 2005년 41개보다 소폭 증가
  - 한편, 경쟁열위품목은 2005년 26개(38.8%)에서 2012년 18개(26.8%)로 감소
  - 특히, 절대우위 및 열위 품목 감소분이 상대우위품목으로 흡수되며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향상

- 산업별로는 목공품 등 목제품의 對中 경쟁력은 강화되나, 목재·펄프·종이 제품에서의 경쟁력은 지속 약화
  - 목제품 분야는 목제통(桶), 목공품 등 12개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가 지속
  - 반면, 목재·펄프·종이 제품 중 절대우위품목은 과거 5년간과 최근 2년간 각각 5개, 4개씩 감소할 뿐 아니라, 상대 열위 품목은 각각 2개씩 증가하는 등 경쟁력 약화 양상 지속
  - 특히 판, 포장지, 인쇄용지 등은 최근 2년간 對中 경쟁력 약화로 경쟁열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남

< 펄프·목제품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펄프·목제품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구 분	절대우위		상대우위		상대열위		절대열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목제품	0	0	7	5	-1	-4	-6	-1
목재·펄프·종이	-5	-4	3	2	2	2	0	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⑤ 비(卑)금속(6)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약화

○ 對中 경쟁력 열위 품목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對中 수입이 많은 철강 및 관련 제품에서는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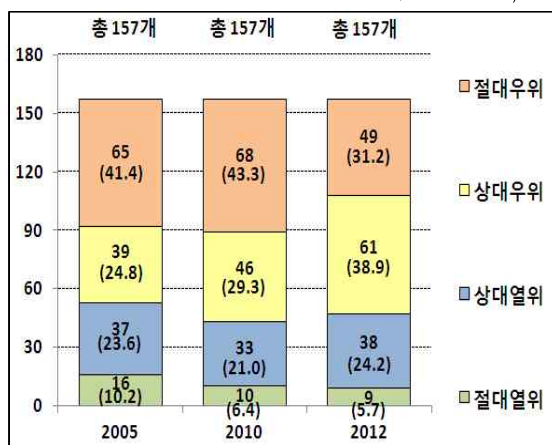
- 2005~2012년 사이 비금속제품의 對中 경쟁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철강 및 그 제품, 니켈·동·알루미늄·연·아연 등 비금속제품 분야 중 경쟁우위 품목은 2012년 110개로 지난 2005년 104개에서 소폭 증가에 그침
- 더욱이 경쟁열위품목도 2005년 53개(33.8%)에서 2012년 47개(29.9%)로 소폭 감소에 머물

- 산업별로는 對中 수입이 많은 철 및 관련제품에서의 對中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비금속제품도 경쟁력은 소폭 하락 양상을 보임

- 2005~2012년, 철 및 관련 제품의 對中 경쟁력이 대폭 약화
- 특히, 이 가운데 철강 성형제품, 케이블 등 중국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절대우위 품목수가 최근 2년간 28개에서 14개로 대폭 축소, 철강 관련 제품의 對中 경쟁력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침
- 반면, 동, 아연, 알루미늄 등 기타 비금속의 선·관·관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우위 품목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절대우위품목은 감소하고 상대열위품목은 증가하며 경쟁력이 소폭 하락 양상

< 비금속제품의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비금속제품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구 분	절대우위		상대우위		상대열위		절대열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철 및 관련제품	1	-14	-1	9	0	4	0	1
기타 비금속	2	-5	8	6	-4	1	-6	-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6) 비금속(Base Metal)이란, 귀금속의 상대어로, 알칼리 금속·알칼리 토류 금속 등과 같이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는 금속을 말하는 바, 주로 철강, 동, 니켈, 알루미늄, 연, 아연, 주석, 마그네슘, 망간 등을 포함함.

⑥ 전자·기계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약화

○ 전자회로·반도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이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정밀기기, 가전제품 등 분야에서는 우위가 지속 약화

- 2005-2012년 사이 전자·기계분야의 경쟁우위품목은 감소하고 열위품목은 증가하는 등 경쟁력 약화 지속

· 기계·중장비, 전기·전자·반도체, 정밀기기 등 전자·기계 분야 중 경쟁우위품목은 2005년 111개에서 2012년 109개로 소폭 감소

·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12년 59개(35.2%)로 2005년 57개(33.9%)에서 소폭 증가

- 산업별로는 전자회로, 다이오드 등 제품은 對中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기계·중장비, 가정용 제품 등은 경쟁력이 지속 약화

· 2005~2012년, 통신기기(핸드폰, 레이더 등), 전자회로, 반도체 디바이스 등과 측정기기, 의료용기기 등 일부 정밀기기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우위 유지

· 하지만, 데이터처리, 가열·조리기, 인쇄용 기기 등 기계·중장비, 일부 가정용 전기제품 분야에서는 경쟁열위 양상 지속

· 특히, 기계·중장비 제품의 절대 및 상대우위품목은 최근 2년간 감소폭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상대 및 절대우위품목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對中 경쟁력 약화 양상이 지속

< 전자·기계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전자기제품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구분	절대우위		상대우위		상대열위		절대열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기계·중장비	-6	-7	6	2	4	5	-4	0
전자전자·반도체	0	-2	4	1	-2	0	-2	1
정밀기기	4	-7	0	3	-3	4	-1	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⑦ 운송장비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 완성차를 중심으로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선박 및 자동차부품 등 분야에서는 경쟁 열위가 여전히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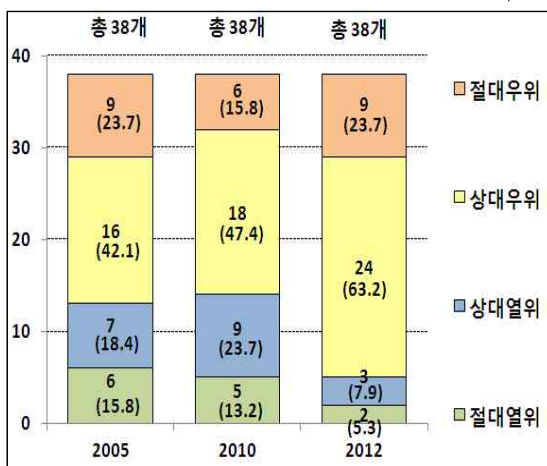
- 2005~2012년 사이 운송장비 분야의 對中 수입품목 38개 중 상대 및 절대 열위 품목은 13개에서 5개로 감소

- 철도·항공·선박, 자동차 및 부품 등 운송장비 분야 중 경쟁우위품목은 2005년 25개에서 2012년 33개로 증가
-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12년 5개(13.2%)로 2005년 13개(34.2%)보다 감소

- 산업별로는 선박, 자동차 부품의 對中 경쟁력 열위 지속

- 2005~2012년, 선박·철도·항공분야 등 운송장비 분야는 절대 및 상대우위품목은 증가한 반면 상대 및 절대 열위품목은 감소하며 對中 경쟁력 향상
- 하지만, 순항선·유람선·페리 등 선박 분야는 對中 경쟁열위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
- 더욱이, 자동차 부품 분야는 對中 중간재 수요 등으로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기술 향상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 양상을 보임

< 운송장비의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운송장비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구분	절대우위		상대우위		상대열위		절대열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5년	2년
철도·항공·선박	-1	2	1	3	1	-3	-1	-2
자동차 및 부품	-2	1	1	3	1	-3	0	-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 3. 시사점

- 양국간 품목별 경쟁력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력은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세부품목별로는 경쟁력에 위협을 받는 품목들이 증가하고 있음
  - 농축수산물, 전자·기계 등 전체 7개 분야의 對中 경쟁력은 지속 확대
    - 한국의 對中 경쟁우위품목은 2005년 771개에서 2012년 863개로 92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12년 384개로 지난 2005년 476개보다 92개 감소
    - 더욱이 경쟁우위품목의 대중 수출은 증가하고, 경쟁열위품목의 對中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對中 수출경쟁력도 아직은 우위를 보임
  - 하지만, 세부품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화학제품, 섬유·가죽제품, 펄프·목제품, 운송장비 등 분야는 對中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분야는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음
    - 화학제품, 섬유·가죽제품, 펄프·목제품 등 분야는 경쟁우위품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감소
    - 반면, 전자·기계 분야는 경쟁우위품목은 지속 감소하나, 경쟁열위품목은 증가하면서 對中 경쟁력 약화가 지속
    - 더욱이 비금속제품 분야는 경쟁우위품목이 증가하나 미약하며, 경쟁열위품목도 소폭 감소에 그치며 경쟁이 약화
    - 특히, 농축수산물 분야는 비록 對中 경쟁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수산물, 작물 등 일부품목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민감 품목 선정 등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내용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 첫째, 협상초기와 비교해 양국 품목간 비교우위 변화 고려 필요
    - 지난 2005년 민간공동연구 시작 시기와 2010년 종료 시기를 비교해 양국 품목간 경쟁력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함
    - 더욱이 2010년과 비교해 2012년 본격적 1차 협상이 개시되었을 때의 품목 간 경쟁력 변화도 점검 필요

- 둘째, 현재 비교우위는 있으나, 상대국 정책적 규제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 필요
  - 중국의 기술추격이 빠른 화학, 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입규제 등 정책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간 수출입 정책에 의한 비교우위 변화도 고려해야 함
  - 더욱이,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음
  
- 셋째, 본격적인 FTA 2단계 협상에 앞서 對中 비교열위산업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 마련도 강구
  - 농축수산물, 철강 등 비금속제품, 전자·기계분야 등 對中 경쟁우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 필요
  - 또, 화학제품, 섬유·가죽제품 등 비록 현재는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경쟁열위품목도 상존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고려 필요
  
- 넷째, 산업별 실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필요
  - 민감 품목의 협의에서 각 산업별 실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협상에 접근할 전략 모색 필요
  - 특히, 농축수산물 등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애로점 반영 대책도 강구
  
- 다섯째, 신성장산업 등 산업육성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안 대책 모색
  - 신성장산업 등 중국의 기술추격이 빠른 분야뿐 아니라, 우주·항공 등 중국의 기술우위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전적 전략 마련이 필요
  - 향후, 중장기적으로 육성시킬 산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보안 대책도 필요 **HRI**

경제연구본부 천용찬 연구원 (junius73@hri.co.kr, 2072-6274)  
한재진 연구위원 (hzz72@hri.co.kr, 2072-6225)

□ 부록 1 : 단계별 품목군 분류 과정

① 1단계 분류 : MCA에 의한 품목군 분류

○ 1단계에서는 2012년 현재 중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토대로 4개의 품목군으로 분류

- 특정국가의 특정 제품의 비교우위분석은 일반적으로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RCA)지수를 사용

· 현시비교우위 지수란 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쓰임

· 다만, RCA분석은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판단할 수 있으나, 특정 대상국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는 판단의 한계 존재

- 특정시장(중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해 RCA를 변형한 시장비교우위(Market Comparative Advantage : MCA)지수로 대체 사용

· MCA지수 도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

$$MCA = \frac{(O_{iw}/O_{ij})}{(I_{jw}/I_j)}$$

※  $O_{iw}$ 는 i국의 對j국에 대한 w제품 수출총액

$O_{ij}$ 는 i국의 對국 수출총액

$I_{jw}$ 는 j국의 w제품 수입총액

$I_j$ 는 j국의 수입총액

· MCA지수가 1 이상이면 해당 품목이 중국보다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 절대우위로 분류

< 1단계 : 품목별 對中 MCA에 따른 산업분류 >

산업구분	구 분 기 준	산업구분	구 분 기 준
절대우위	對中 MCA $\geq 1$	상대열위	$0.1 \leq$ 對中 MCA $< 0.5$
상대우위	$0.5 \leq$ 對中 MCA $< 1$	절대열위	對中 MCA $< 0.1$

- MCA지수가 1 미만, 0.5 이상이면 해당 품목이 중국과 경합 가능하다고 판단, 상대우위로 분류
- MCA지수가 0.5 미만, 0.1 이상이면 해당 품목이 중국에 대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 상대열위로 분류
- MCA지수가 0.1 미만인 품목은 중국에 대해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 절대열위 품목으로 분류

② 2단계 분류 : MCA가 높은 품목군에 대한 재조정

○ 1단계에서 분류된 상대 및 절대 열위 품목군 선정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

- 상대 및 절대 열위 품목 중, 과거 12년간 MCA 증가속도가 빠른 품목의 분류를 한 단계씩 격상해 재조정
  - 2012년 현재의 MCA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과거 12년간 증가속도가 크게 나타났으면, 향후 해당 품목이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1단계에서 분류한 상대 및 절대 열위 품목의 2005~2012년 사이 연평균 MCA가 20%보다 크게 나타나면 상대열위 품목은 상대우위로, 절대열위 품목은 상대열위로 격상

< 2단계 : MCA에 따른 산업분류 재조정 >

조정 조건	1단계	2단계
조정하지 않음	절대우위	절대우위
조정하지 않음	상대우위	상대우위
2000~2012년 사이 연평균 MCA 증가속도 20% 이상인 품목	상대열위	상대우위
	절대열위	상대열위

③ 3단계 분류 :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품목군 재조정

○ 2단계 분류에서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재분류하는 단계

- 무역수지와 교역총액 등을 고려한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를 사용, 2단계 분류결과를 재보완

- TSI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對상대국 경쟁력 지수로 사용됨
- TSI 도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

$$TSI_c = \frac{(O_c - I_c)}{(O_c + I_c)}$$

※  $O_c$ 는 한국의 對中 수출총액

$I_c$ 는 한국의 對中 수입총액

- TSI가 1이면 해당 품목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완전 수출특화이며, -1이면 완전 수입특화, 0이면 수출입 규모가 같은 것을 의미함
- 즉 TSI가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

< TSI 분류 기준 >

구분	구분 기준
한국의 절대적 우위	$0.5 \leq \text{對中 TSI} \leq 1$
한국의 상대적 우위	$0.25 \leq \text{對中 TSI} < 0.5$
양국 경합	$-0.25 \leq \text{對中 TSI} < 0.25$
중국의 상대적 우위	$-0.5 \leq \text{對中 TSI} < -0.25$
중국의 절대적 우위	$-1 \leq \text{對中 TSI} < -0.5$

- 품목별 무역수지 및 교역규모 등을 고려한 2012년 對中 TSI를 기준으로 품목군 재조정
  - MCA지수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액만 고려하지만, TSI분석을 통하여 무역수지와 교역규모까지 고려하여 2단계의 품목군 분류를 재조정
  - 절대우위 중에서 對中 무역특화지수(TSI)를 기준으로, 중국이 상대적 우위로 나타난 품목은 상대우위로,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나타난 품목은 상대열위로 조정
  - 또한, 對中 경쟁이 치열한 상대우위 및 경쟁력이 취약한 상대열위에 해당되는 품목들 중에서 중국에 대해 절대적 경쟁력을 확보(한국의 절대적 우위)하고 있는 품목을 절대우위로 조정함

< 3단계 : TSI에 따른 산업분류 조정 >

조정 조건	2단계	3단계
-0.5 ≤ 對中 TSI < -0.25인 품목	절대우위	상대우위
-1 ≤ 對中 TSI < -0.5인 품목		상대열위
0.5 ≤ 對中 TSI ≤ 1인 품목	상대우위	절대우위
	상대열위	상대우위
조정하지 않음	절대열위	절대열위

④ 4단계 분류 : 수입특화 제품들을 최종적으로 재조정

○ 3단계 분류에서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재분류하는 단계

- 3단계 분류 결과의 상대 및 절대 열위에 속한 품목 중에서 중국에 대해 수입특화된 품목은 일반품목으로 조정

- 對中 상대 및 절대 열위로 분류된 품목 중에는 열대과일 및 일부 국내 시장에 대해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른바 수입특화된 제품들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마지막 4단계 절차에서는 기존의 3단계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및 절대 열위에 속한 품목들 중 對中 TSI가 -1에서 -0.9인 품목(수입특화된 품목)들을 상대우위로 이동

< 4단계 : TSI에 따른 산업분류 최종 조정 >

조정 조건	3단계	4단계
조정하지 않음	절대우위	절대우위
	상대우위	상대우위
-1 ≤ 對中 TSI ≤ -0.9 인 품목	상대열위	상대열위
	절대열위	상대우위

□ 부록 2 : 2012년 산업별 품목의 분류 결과

(단위 : 개, %)

구 분		절대우위	상대우위	상대열위	절대열위	합 계
농축수산물	축 산	0 (0.0)	0 (0.0)	14 (87.5)	2 (12.5)	<b>16</b> <b>(100)</b>
	수 산	0 (0.0)	4 (50.0)	4 (50.0)	0 (0.0)	<b>8</b> <b>(100)</b>
	가 공 식 품	14 (15.2)	54 (58.7)	16 (17.4)	8 (8.7)	<b>92</b> <b>(100)</b>
	작 물 (과일,채소 등)	1 (3.1)	27 (84.4)	4 (12.5)	0 (0.0)	<b>32</b> <b>(100)</b>
	곡 물 · 종 자	3 (9.7)	27 (87.1)	1 (3.2)	0 (0.0)	<b>31</b> <b>(100)</b>
	동식물성 유지	2 (9.2)	16 (72.7)	1 (4.5)	3 (13.6)	<b>22</b> <b>(100)</b>
기타	광 산 품	7 (10.8)	37 (56.9)	8 (12.3)	13 (20.0)	<b>65</b> <b>(100)</b>
화학제품	의료·화장품	6 (30.0)	6 (30.0)	5 (25.0)	3 (15.0)	<b>20</b> <b>(100)</b>
	유·무기화학품	30 (30.0)	37 (37.0)	29 (29.0)	4 (4.0)	<b>100</b> <b>(100)</b>
	화 학 공 업 품	19 (31.1)	25 (41.0)	13 (21.3)	4 (6.6)	<b>61</b> <b>(100)</b>
	플라스틱·고무	23 (53.5)	6 (14.0)	10 (23.3)	4 (9.3)	<b>43</b> <b>(100)</b>
섬유·가죽	원피·가죽·모피	8 (27.6)	13 (44.8)	7 (24.2)	1 (3.4)	<b>29</b> <b>(100)</b>
	섬 유 제 품	45 (26.6)	71 (42.0)	50 (29.6)	3 (1.8)	<b>169</b> <b>(100)</b>
펄프·목제품	목 제 품	0 (0.0)	24 (88.9)	2 (7.4)	1 (3.7)	<b>27</b> <b>(100)</b>

(단위 : 개, %)

구 분		절대우위	상대우위	상대열위	절대열위	합 계
	목재·펄프·종이	8 (20.0)	17 (42.5)	9 (22.5)	6 (15.0)	<b>40</b> <b>(100)</b>
	기타	6 (12.2)	22 (44.9)	19 (38.8)	2 (4.1)	<b>49</b> <b>(100)</b>
	귀 석 귀 금속	5 (27.8)	8 (44.4)	2 (11.1)	3 (16.7)	<b>18</b> <b>(100)</b>
비금속제품	철강 및 그제품	14 (25.5)	20 (36.4)	19 (34.5)	2 (3.6)	<b>55</b> <b>(100)</b>
	기타 비(鉄)금속	35 (34.3)	41 (40.2)	19 (18.6)	7 (6.9)	<b>102</b> <b>(100)</b>
전자·기계	기계·증장비	34 (39.1)	23 (26.4)	25 (28.8)	5 (5.7)	<b>87</b> <b>(100)</b>
	전기·전자반도체	20 (41.7)	16 (33.3)	11 (22.9)	1 (2.1)	<b>48</b> <b>(100)</b>
운송장비	철도·항공·선박	3 (13.6)	17 (77.3)	2 (9.1)	0 (0.0)	<b>22</b> <b>(100)</b>
	자동차 및 부품	6 (37.5)	7 (43.8)	1 (6.3)	2 (12.5)	<b>16</b> <b>(100)</b>
전자·기계	정 밀 기 기	5 (15.2)	11 (33.3)	13 (39.4)	4 (12.1)	<b>33</b> <b>(100)</b>
기타	시 계·악 기	1 (4.3)	15 (65.3)	7 (30.4)	0 (0.0)	<b>23</b> <b>(100)</b>
	방 위 제 품	1 (14.3)	5 (71.4)	0 (0.0)	1 (14.3)	<b>7</b> <b>(100)</b>
	잡품·예술품	3 (9.4)	15 (46.9)	13 (40.6)	1 (3.1)	<b>32</b> <b>(100)</b>
<b>합 계</b>		<b>299</b> <b>(24.0)</b>	<b>564</b> <b>(45.2)</b>	<b>304</b> <b>(24.4)</b>	<b>80</b> <b>(6.4)</b>	<b>1,247</b> <b>(100)</b>

주 : ( )는 2012년 분야별 품목 비중임.



□ 부록 3 : 2005~2012년 산업별 품목수 변화 추이

(단위 : 개)

구 분		절대우위		상대우위		상대열위		절대열위	
		5년간	2년간	5년간	2년간	5년간	2년간	5년간	2년간
농축수산물	축 산	0	0	0	0	1	0	-1	0
	수 산	0	0	0	-1	0	1	0	0
	가 공 식 품	-3	0	7	6	3	-6	-7	0
	작물(과일,채소 등)	-2	0	5	-1	1	1	-4	0
	곡 물 · 종 자	0	1	4	2	0	-3	-4	0
	동식물성 유지	1	-1	1	1	-2	1	0	-1
기타	광 산 품	1	-2	2	6	0	-5	-3	1
화학제품	의료·화장품	0	-2	4	0	0	1	-4	1
	유·무기화학품	3	0	-1	7	0	-2	-2	-5
	화 학 공 업 품	-5	1	6	1	1	0	-2	-2
	플라스틱·고무	-2	3	3	-2	0	0	-1	-1
섬유·가죽	원피·가죽·모피	-2	2	2	3	0	0	0	-5
	섬 유 제 품	-6	-8	14	21	7	-13	-15	0
펄프·목제품	목 제 품	0	0	7	5	-1	-4	-6	-1
	목재·펄프·종이	-5	-4	3	2	2	2	0	0
기타	석·도자기·유리	0	1	5	-6	-2	5	-3	0
	귀 석·귀 금 속	2	-1	2	1	-2	1	-2	-1
비금속제품	철강 및 그 제품	1	-14	-1	9	0	4	0	1
	기타 비(卑)금속	2	-5	8	6	-4	1	-6	-2
전자·기계	기 계 · 증 장 비	-6	-7	6	2	4	5	-4	0
	전기·전자반도체	9	-2	4	1	-2	0	-2	1
운송장비	철도·항공·선박	-1	2	1	3	1	-3	-1	-2
	자동차 및 부품	-2	1	1	3	1	-3	0	-1
전자·기계	정 밀 기 기	4	-7	0	3	-3	4	-1	0
기타	시 계 · 악 기	0	-2	7	-1	-2	4	-5	-1
	방 위 제 품	0	0	0	-1	0	0	0	1
	잡 품 · 예 술 품	-2	-6	1	3	2	4	-1	-1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기준.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연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2.3	2.6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5	1.7	2.1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2.4	7.1	2.5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9	-5.1	1.0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100	198	395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7	143	270
	수출(억 \$)	증감률(%)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4	1,413	5,589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4)	(0.8)	(2.0)
	수입(억 \$)	증감률(%)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1,269	5,319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0)	(-2.7)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1.1	1.6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1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7	1,085	1,123	1,10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